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교회설립 3주년과 추수감사절 행사

감사에배와 성찬예식, 감사찬양예배, 집사 안수식과 권사취임식 등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만을 힘입고 교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의미있는 날로 기억하는 교회 설립기념일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설립일이자 추수감사절인 27일(주일)에는 I, II, III부 예배시간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27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지난 6월의 공동의회를 거쳐 선출된 후 그간 교육과 훈련을 해 온 일꾼들의 집사 안수식과 권사취임식이 있다.

다음 주일(20일) 저녁 찬양예배는 추수감사절과 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찬양예배를 베들레헴찬양대(대장: 이영렬 장로, 지휘:김용진, 반주: 유혜련) 주관으로 드린다.

아울러 이 시간은 지난 10월부터 계속해 온 비전 2000운동의 승전보고와 전도시상을 하는 「비전 2000승전감사예배」도 드리게 된다.

지난 날들동안 우리 민족과 교회,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예기치 못한 은혜들로 채우신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이 날들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95년도

교회학교 및 위원회 지도 교역자 인사 확정

우리 교회 당회는 교회학교와 각 위원회를 지도할 교역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하였다.

▶ 교회학교 지도

- 타아부: 유순화 · 유치부: 김경아
- 유년부: 최병호 · 초등부: 권상석
- 중등부: 김재호 · 고등부: 김용진
- 대학부: 김영한 · 청년부: 이만열
- 소망부: 심상권 · 새가족부: 김주아
- 사랑부: 임진태 · 장년부: 미정

▶ 각 위원회 지도

- 예배위원회: 장용휘
- 찬양위원회: 최병호
- 교육위원회: 임진태
- 교구위원회: 김재호
- 전도위원회: 권상석
- 선교위원회: 권상석
- 구제위원회: 김주아

▶ 당회 소속 기관 지도

- 출판국: 장용휘
- 한국교회개신연구원(KIMCHI): 임진태
- 권사회: 유순화

▶ 각 교구 지도

추후 발표



원 전도주일, 전교인 만남의 주일, 전기족 상봉의 날, 친구초청 주일 등 특색을 두고 한주간씩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이번 비전 2000운동기간 동안 미처 초대하지 못한 이웃은 없었는지 돌아보자.

오늘은 이웃초청 주일

비전 2000운동이 승전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각양의 모습으로 전도와 기도에 힘쓰며 지나온 50일 간의 승전보고서를 드릴 날도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전도와 기도운동은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기간에 작정하고 기도해 온 태신자가 이 대열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총동원

초등부 찬양대 발표회 <어린 순례자의 합창>

19일(토) 오후 5시, 1층 예배실에서

맑은 목소리와 고은 화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초등부 찬양대(지휘: 조대영, 반주: 홍혜란)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발표회를 연다. 비전 2000운동의 일환으로 50여 명의 찬양대원의 찬양과 악기연주,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조 출연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이번 발표회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여는 것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과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초청 전도집회형식으로 기획된 것이다.



▲뮤지컬 <호세아> 중의 한 장면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공연한 뮤지컬 <호세아>. 영감어린 대사가 노래로 한 곡조씩 흘러 나올 때마다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다.

◀공연을 마치고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창세기 강해



언약의 자손

(17장 15절 ~ 27절)

이 중 운 목사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감사한 일인데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약속된다면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여섯번이나 나오며(7 ~ 10, 19절), 오는 세대'라는 말이 세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후대에 길이 복을 누리게 할 복의 기관이 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꾸시는데 그 이름 속에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집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임을 인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세례를 연결시켜서 새 언약의 백성된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1. 할례 (세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단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고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① 죄 씻음 받은 표

세례를 받는 의식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그 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례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②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

세례를 받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표입니다. (롬6장).

③ 완전한 교인이 된 표

세례식 성찬식을 통해 신자는 세상의 중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례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 복음 증거와 봉사의 생활 등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2. 구원

유대인들은 할례만 행하면 저절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생각했으나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믿는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의 후예임을 자처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豫知)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豫定) 부르심으로(召命), 거듭나게 하시(重生)고 회개(信仰과悔改)한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稱義), 양자(養子)삼으시고, 거룩케 하시며(聖化), 종국에는 완전한 영화(榮華)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3. 영적인 계약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롬 2:28, 29)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민족적인 계약도 아니요, 국가적인 것도 아니며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수반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

나님을 사랑하게 하려 하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더욱 힘써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바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자녀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22:6).

셋째, 교회는 가르칠 책임이 있는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사랑으로 치유를

사랑은 모든 덕성을 완성시킬 집합체이며 그러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옹서도 이해도 화목도 친절과 부드러운 태도도 흘러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되 참는 이유를 알고 불평없이 기쁨으로 참는다. 억지로 참는 것은 버티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인내는 아니다. 사랑은 고통의 의미를 알게도 하고 만들게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통해 지혜도 얻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도 없다. 사랑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게 한다. 사랑이 없는 자는 나약해지고 사랑을 상실한 자는 포악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사랑을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사랑의 회복으로 가능하며 우리들 개인의 상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때에만 비로소 바른 가치와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1월 7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 신의 마음을 이해려는 천재 과학자의 시도 -

강사 / 정근모 박사(전 과기처 장관)

현대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가 21세되던 해 퇴행성 신경근육질환인 루게릭병으로 1~2년 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전신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받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부실 만한 연구업적을 쌓아오고 있다. 1985년 언어까지 잃어버린 그의 유일한 의사표현 방법은 이제 손가락의 아주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언어합성기와 컴퓨터에 의지하는 것 뿐이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휠체어에 앉아 광대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호킹에게서 신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을 읽을 수 있을 듯 싶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how) 생겨났는가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왜(why) 생겨났는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종교의 몫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호킹은 그의 책 <시간의 역사: 빅뱅에서 검은구멍까지 A Brief History of Time: from The Big Bang to Black Holes>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어떤 선택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호킹 자신도 명확히 밝혔듯이 신의 마음을 읽는 데 시계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우주와 시간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어 호킹만의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주를 주어진 것 즉 절대적 조건으로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이 책의 최종 목표는 우

리둘레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킹이 이 책에서 그 우주를 만든 신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호킹은 이 책에서 술한 질문을 던진다. 우주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우주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주는 시작이 있었을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종말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며 또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호킹 식의 과학적인 대답은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창세기적인 문제를 현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규명하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우주에 관해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로부터 우주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얻게 된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란 여태껏

제기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실제 관측된 우주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킹은 지금까지 발전된 두 갈래의 이론체계 즉 일반상대성이론(general relativity)과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을 종합, 재구성해 우주의 전체적인 생성과 역학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전 우주를 설명할 대통일이론(GUT: grand unified theory)이다. 호킹에 있어서 우주의 생성, 진화에 관한 완전한 통일이론의 완성은 필생의 소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과학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서 극히 소수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흥미를 지닐만한 우주의 기원과 앞날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은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다. 호킹은 바로 이 책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호킹의 주장에 시종일관 흐르는 신에 대한 암시는 어쩌면 그의 뛰어난 두뇌와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보다 그의 삶 자체에서 훨씬 강하게 발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현대과학이 무수한 연구 끝에 얻어낸 결론이 신학자들의 사변에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그 물음의 자리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과학 속의 신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전 2000운동 이야기 - 병원전도 다녀와서

“지속적인 전도활동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장 선 옥 (집사, 11교구 삼석 다락방)

비전 2000운동이 시작한 지도 한달이 넘었지만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을 안타까와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 보니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 올림픽 공원, 가락시장 등 노방 전도하기 좋은 곳이 많이 있고 큰 병원도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는 다락방 모임 때에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먼저 병원 전도를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무장을 하고 전도지 등의 유인물, 설교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한 모임도 취소하고 오신 C집사님, 기침을 몹시 하는 세살박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오신 O집사님, 집안의 초상으로 피곤을 채 풀지도 못하였지만 차량봉사를 해 준 H집사님.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권사님의 기도에 힘을 얻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2인 1조로 3개조가 입원실로 향하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 때 짧은 스포츠 머리의 전경들이 무서웠는지 O집사님의 꼬마가 막 울기 시작했고 아이를 달래야 하는 내 마음도 울고 싶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올 때 열린 병실 안에서 나누어 준 전도지를 읽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하고 질문을 하였을 때, 거의 모두가 안다닌다고 했는데 <순례자>와 전도지 등을 진지

하게 읽는 모습에서 성령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신 것같이 감사하였습니다. 약국 앞과 외래진료실 앞에는 일반 환자들도 많이 있어서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노방전도 때에는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병원에서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날 전도활동을 통해 입원한 경찰아저씨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번의 방문으로 이 일을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가 진리를 설명해 주고 책자나 설교테이프를 통한 전도를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활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날은 날씨가 저도 쾌청하여 마음이 한없이 기뻛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전도자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윤진 장로 소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던 유윤진 장로님께서 지난 10일(목) 소천하셨습니다.
 유 장로님은 1931년 5월 20일 경기도 오산에서 출생하시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셨고, 한양대학교 산업미술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시던 중이셨습니다.
 1978년에 장로로 장립하신 이후 16년간 교회를 섬기셨으며, 1991년부터 우리 교회의 창립회원으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이영자 권사님과 슬하에 1남 3녀(태서, 은경, 혜련, 사라)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12일(토)에 학교장으로 거행했으며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 조사 - 유윤진 장로님을 보내며

“힘에 겨운 허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당신의 섭리가 차질없이 계속됨도 믿습니다.
 그 많은 섭리와 역사를 당신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역사를 중단하시거나 잠시 쉬어가실 의사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인 유윤진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불행이고, 불행이고, 계약 위반이 아닌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정한 기한까지 세상에 머물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치라고 하지만 그 부르심의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 당하는 우리들의 당혹감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중요한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님을 잃게 되니 그 전후 사정이 궁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장로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품고 있는 의구심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넓게 자리를 잡았던 장로님의 자리를 비워둔 채 우리는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풀지 못할 수학문제 같기만 하고 답답증만 더해갈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 말씀에 이해가 가면 우리의 아픔과 분노와 비통함을 돌려드리겠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절립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허물이고 죄악이고 범죄입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 서서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흔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무리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에 감히 돌을 던지고 침벨고 욕하고 멸시하는 현장을 보면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방어도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어지러워지는 한국 교회의 현재를 보신 주님께서는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리하여 유윤진 장로님이 우리의 희생양,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닮은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흠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화해자였습니다.
 그는 신앙 우선이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이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 그의 피부, 그의 미소, 그의 어느 것도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는 그 모든 것에서 탈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의 소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이고 유 장로님의 유업을 받는 길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 고인의 뜻을 받들고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계속되기를 다짐합니다.
 유윤진 장로님을 보내는 것은 힘에 겨운 허락임을 말씀드리며 조사에 가뵙습니다.

1994. 11. 12. 김 광 신 드림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3주년을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와 위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3. 비전 2000운동의 참된 결실을 위하여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복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